

한국대담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며...



김형
삼성물산(주) Civil 사업부장 전무

한국대담회는 창립 이래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영욕의 세월을 함께 해 오면서 어느 덧 불혹의 나이를 맞았습니다. 대담회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의 건설한 대담회로 발전시켜 주신 여러 역대 회장님과 고문님들 및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댐은 경제개발 초기 국가 재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수자원 확보 및 홍수 조절 뿐만 아니라 수력발전 등의 친환경적인 에너지 수요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댐은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대담회는 지난 40년동안 한국의 댐 기술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으며, 관계기관과의 자문 또는 기술지원을 통하여 한국의 댐 개발에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 또한, 조사연구활동 및 해외기관과의 기술교류 등을 통하여 댐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였으며, 해외에서 국내 댐 및 물 관리 기술이 인정받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세계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이상 홍수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용수수요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물 문제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비즈니스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댐 시설을 포함한 인프라 건설시장이 이미 포화되고 있어, 국내 기업에게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적극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자국 산업의 보호가 점점 더 강화되어 해외시장의 개척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댐 및 수자원 관련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소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댐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댐은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중국, 인도 등지에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인 수력발전 개발목적으로 댐 건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현재도 계속해서 대규모 수력발전 댐이 신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화력발전을 수력발전으로 대체하고자 기존 댐 개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차원에서 댐 축조 및 관리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력발전을 위한 댐 계획 및 설계기술과 재정/사회/환경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대담회의 지속적인 조사연구, 다양한 기술교류 및 해외협력은 국내 기업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댐 건설은 국토의 보존과 수자원의 이용 및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개발 적지의 감소와 사회·환경적인 문제로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및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신규 댐을 건설하는 것이 어려워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기존 댐의 재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이 강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종합적인 관리능력 향상 뿐만 아니라 지진 등에 대비한 댐 안전성 향상 측면에서도 다양한 댐 재개발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 번 한국대담회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댐 기술 발전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40년의 대담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과는 우리의 미래 물 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지금까지의 결실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더욱 건설하고 미래 지향적인 대담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한국대담회가 세계적인 댐 기술을 선도하고, 우리나라 수자원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기업과 함께 변화하는 시장과 새로운 미래를 주도하는 주역이 되리라 기대합니다.